
2021년 제2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5. 21. ~ 5. 2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5. 22.	시청률	0.029

【총 평】

‘소백산 750고지 영혼의 쉼터’편에서는 귀향이자 귀산 20년차 60대 부부의 소백산 생활 이야기가 다큐형식으로 전개되어 도시민과 직장인들에게 삶의 여유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전달해주었다. 특히 산촌 소확행을 통해 건강도 회복하고 삶의 활력소를 얻었다며 산촌 생활이 활력소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 흡인력을 높였다.

주인공의 만면에 떠나지 않는 미소와 구수한 입담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고, 등산객들을 맞이하는 나눔, 마을 주민을 보살피는 봉사, 산새 집을 짓는 자연 사랑 등이 주인공을 묘사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또, 자유의 종, 달밭골 나눔터 부부, 귀산 동기, 소백산 나물 채취, 별바라기 언덕 등을 통한 스토리 전개가 몰입감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특히 주인공의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 공감의 폭을 키울 수 있었다.

경상도에서 가장 험준한 산으로 꼽히는 소백산 중 첫 번째 자락마을에 주인공이 살고 있다. 쉼터 겸 민박을 운영하는 주인공은 아침이 되면 꼭 종을 울린다. ‘자유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종을 울리며 영혼을 깨운다고 한다. 19년간 주막을 운영해온 부부는 나물전을 만들 때에도 시중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캔 나물만으로 장사를 하는 등 나름의 기준이 있다. 등산객들이 마을을 방문해 종을 치고 주방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등산객들은 각종 나물로 만든 나물모듬전과 막걸리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

주인공은 서울 직장생활에서 잃은 건강을 소백산 생활로 치유했다며 귀향했을 때는 후회도 했었지만, 너무 좋은 귀향을 더 빨리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소백산이 명 의이고 영혼을 일깨워줬다며 소백산을 예찬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거짓말같이 좋지 않던 몸이 좋아지고 마음까지 평화롭게 되었다.

소백산 자락에 기대어 자연과 더불어 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도시에서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치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내려와 소백산을 찾는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하고 또 지역 주민과 교감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김진선 씨의 모습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주인공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 미소, 자신감과 만족감, 행복감 등 언행에서 드러났으며, 주인공은 “소백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소백산은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 등은 특별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별바라기 언덕에서 별을 보며 “나이 60이 되도록 하늘의 별을 다 세지 못했다”며 너털웃음을 지으며,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거야!”하는 주인공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5. 22.	시청률	0.110

【총 평】

‘김치 아리랑 - 경기도 남양주’편은 봄 김장의 특징과 옛 문헌에 담긴 해물섞박지 맛의 특징, 좋은 재료가 맛 좋은 김치를 만들어 낸다는 김치 명인의 소신과 바람을 아쟁 음악에 묻어내어 색다름을 선사했다. 봄김장은 고랭지 배추와 토판염으로 배추를 절여 각종 양념소를 만들어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소개했다. 또, 해물섞박지는 김치로 해물과 김치, 무를 다듬어 섞박지를 담그는 과정과 역사적인 배경 설명 등을 알려주었다.

특히, 김치에 얹힌 역사, 김치와 섞박지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중국과 김치 논쟁이 한창인 만큼 시기적으로 의미 있었다.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시작부분에 김치 써는 소리와 새 소리, 김치 씹는 소리 등이 몰입도를 높였고, 김치에 밥을 먹는 장면 등 소리와 영상의 절묘한 조화가 기대감을 높였다.

겨울 월동 김치를 담고 4월에서 5월초에는 봄김장이라고 하여 다음 겨울 월동 김치를 담그기 전까지의 저장 김치로서 여름까지 먹을 수 있는 시기를 언급해 ‘봄김장 담그기’에 관한 시즌의 적절성 등 김장 김치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치를 담그는데 있어 모든 재료의 신선함과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맛의 비결을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게 하였고 배추김치 담그기에 있어 절이는 과정이 매우 중요성과 절일 때 쓰는 소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었다.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김치명인의 봄 김장 담그는 모습을 깔끔하게 소개했다. 봄 김장과 해물섞박지라는 다소 생소한 배추담그기였지만 김치명인의 좋은 재료 선택과 정성이 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 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특히, 좋은 재료에 정성과 기본에 충실해 김치를 담아내는 김치 명인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김치에 대한 신념이 확고부동해 김치 맛을 짐작할 수 있을 듯 했다. 특히,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하나의 맛으로 가는 과정이 김치 담그는 일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김치는 젓갈을 사용하는 데서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이 밖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김치가 지정된 우리의 김치에 대해 젓갈이 들어가서 채소절임을 한 발효식품으로 정의하였고 세계 5대 건강식품에 김치도 들어가 있음을 알려주며 김치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

해물섞박지를 담그는 과정에서 요즘 사람들이 주로 쓰는 설탕이나 매실청 같은 양념 대신 해물과 젓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더 강조한 대목도 꽤 의미가 있었다. 또, 일반적인 김치 종류와는 사뭇 다르게 해산물인 소라, 전복, 낙지 등을 손질하여 데쳐서 잘게 썰어 버무린 김치에 넣고 부가적으로 오이와 가지를 소금에 절인 것과 무를 넉적하게 넣어 숙성시키는 방법들을 소개해 이색적이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5. 22.	시청률	0.038

【총 평】

친독은 '북한 카타르 월드컵 불참 확정'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고, ISSUE 텔링은 장마당을 통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북한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은 6월 7일 예정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남북 경기를 무산시키며, 불참을 선언한 속내와 한미정상회담이 남북미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해 보았다. 특히,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가 경색된 국가관계의 완화 계기로 중요한 부분인데, 남북교류의 장이 사라져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3박 5일 일정을 소개하고, 코로나 백신 수급을 논의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북한의 카타르 월드컵 불참 선언과 한미정상회담의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역할을 하는 장마당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카타르 월드컵 불참을 선언한 북한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자국민의 선수 보호를 위해 불참을 선언했다. 남북한의 관계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매개체가 없어져, 난감한 상황임을 전달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무엇이든 사람들의 교류가 이뤄지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선언한 만큼 북한 주민들을 다잡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북한의 카타르 월드컵 불참을 계기로 북한의 축구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평상시에도 유럽 축구를 중계한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3박 5일 일정을 소개했는데, 정상회담을 비롯해 교민 만남, 애틀랜타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방문, 한국전쟁 참전 전시자 3만6천여명에 대한 워싱턴 한국전쟁참전 기념공원 추모의 벽 착공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병사들을 위한 문대통령의 참배 일정은 외교적으로 가치 있는 행보이다.

장마당을 통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북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장마당의 탄생 배경부터 그 형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의 존재감, 현장에서 파는 물건 등 다채로운 내용이 잘 다루어졌다. 북한의 장마당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준 삶의 뿌리다. 북한에서는 두 개의 당이 있는데 노동당과 장마당이다. 껍껍땀, 팽팽땀은 북한 담배를 지칭하는 말, 남한보다 독한 것이 특징이고, 어디 아프면 자신이 진단하고 약은 장마당에서 구입한다. 즉 없는 것 빼고 모두 있지만 당국은 단속한다. 특히, 식용유 등의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 또한 최근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 시장의 물가가 요동치고 있어 장마당의 현실도 녹록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5. 22.	시청률	0.004

【총 평】

‘비극적인 학살의 상흔 - 화순 민간인 희생 사건’편은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지역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북한 인민군과 국군, 경찰 등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된 비극적인 사실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통해 ‘화해’ 메시지를 부각시킨 기획이 돋보였다.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308명 가운데 인민군 희생자 143명 외에 우리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사망자도 165명이나 된다는 점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빨치산과 군경 토벌대 사이 교전이 벌어지면서 화순지역 주민들이 군경이나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좌우 세력에 의해 번갈아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횡포가 낱알이 고발 됐다.

【구성 및 내용】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그동안 은폐되고 왜곡된 민간인 희생사건을 대상으로 아픈 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기록물과 증언으로 ‘다시 쓰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비극적인 학살의 상흔 - 화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전남 화순지역의 도암면, 도곡면, 다산리, 동면 북암리, 장동리, 이서면 야사리 등에서의 피해사례를 전해주었다. 유족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재현해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죽음과 상처를 안겼던 전쟁의 질곡 그리고 좌우대립 등 이 사건이 주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간직한 전남 화순지역에서 왜 이런 끔찍한 비극적 학살의 참상이 빚어졌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밝혀낸 점이 전후세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역사의식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유족들의 체험담 위주로 내용을 구성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더 실감나게 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왜 이 사건을 기억해야만 하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자는 제언을 담아낸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또,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대립과 한국전쟁 당시 어쩔 수 없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군과 경찰 그리고 빨치산 등 각 주체들이 뒤엉켜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점에서 의미 있었다.

전남 영광과 함평 등의 지역과 더불어 순천은 혼란과 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소재였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 사과, 위령 사업 지원, 공식 역사기록의 등재 등을 권고했으며, 화순군은 2012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추모의 공간을 조성했다. 마무리 부분에서 유족회 회장이 희생자 추모공간을 후세를 위한 역사 교육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유족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미가 적지 않았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5. 23.	시청률	0.000

【총 평】

5월 가정의 달 계기 특집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편은 우리사회가 변화하면서 직면한 신가족 개념의 이슈가 된 ‘위탁가정도 가족입니다.’, ‘미혼부도 아빠입니다.’, ‘엄마 성을 따르는 가족도 있습니다.’ 등에 대해 가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한다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소개했다.

가정의 달 기획으로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된 사안을 세 가정의 사례를 탐방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사회문제를 쉽게 접근해 담아낸 구성이 관심을 유발했다. 특히 사안별로 문제 제기를 한 뒤 찬성과 반대 인터뷰를 통해 핵심쟁점을 부각하고 함께 고찰해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컸다.

【구성 및 내용】

우리사회가 변화하면서 직면한 신가족 개념의 이슈가 된 ‘위탁 부모’, ‘미혼부’,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는 문제 등을 정면으로 살펴보고 문제 제기와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해본 점이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했다. 소제목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방향성이 잘 드러난 표현이었다. 또, 가족 관계의 폭 넓은 해석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는데 전통적으로 유지돼온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 특히, 핵심 쟁점을 부각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 점도 설득력과 의제설정 순기능을 제고했는데, 위탁아동을 자식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해야하고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법적인 규정 때문에 위탁부모와 미혼부가 겪고 있는 고충, 쌍둥이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준 부부의 이야기는 현재 법 개정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핫 이슈라는 점에서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혼인과 혈연에 기초해서 가족을 규정했던 법의 테두리를 사실혼과 비혼 그리고 동성혼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아냈는데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치우침 없이 객관적인 톤을 유지하려고 한 시도도 좋았다.

미혼부 이야기는 출생신고조차 허용하지 않는 법적 관행에 대한 일종의 투쟁기였는데 미혼부를 돕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로 반향이 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다. 여성가족부는 사안별로 법 개정 시행과 향후 방침을 밝혔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족 범위에 위탁가정 자녀도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소화하는 ‘사랑이법’도 관철될 것임을 전달했다. 자녀에게 엄마의 성씨를 물려주는 문제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의 폐기로 가능해져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밖에 우리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비혼, 동거가정까지 가족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를 논의 대상으로 설정한 점도 유의미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5. 23.	시청률	0.108

【총 평】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활용한 충남 예산군 교육 사례와 천안시의 어르신 스마트 앱 교육 등 정책 미담 사례, 전 국민으로 확대한 지자체 디지털 교육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지원금, 세계 나라별 근무 형태, 청년창업농과 청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교육사업 성과를 정책 미담으로 소개하면서 정부의 언택트 정책인 ‘디지털 배움터’를 돈이 되는 정보로 소개하였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언택트 시대에 꼭 필요한 비대면 관련 정책으로 디지털 배움터, 중소기업 재택근무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세계의 근무 형태까지 두루 살펴봤다. 농촌을 위한 농업지원 정책으로 후계농 영농지원 정책, 농지연금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IT시대를 선도하고 비대면 시대에 더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의 스마트 폰 사용법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무료 교육에 대해 소개했다. 비대면 관련 정책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 소식이 가장 돋보였다.

키오스크 등의 사용법을 몰라 고생한 사례도 많은 만큼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각 지역의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초 강의를 통해 스마트앱으로 결제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례들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고, 비대면 문화에 불편함을 느끼는가도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내용 전체에 신뢰도를 높였다. 또, 디지털 배움터에서 가르쳐주는 내용과 교육과정, 신청방법, 문의처 등도 차례로 소개되어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이 실시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알려주었다.

농업지원정책으로는 후계농 영농지원과 농지연금에 관해 소개했다.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은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 지원으로 농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정착지원금부터 농지나 농기계 구입 지원, 농사짓는 법 교육과 교육훈련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유익한 정책이었다.

농지연금 혜택은 고령농업인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받는 토지금융제도이다. 65세 이상의 농업종사자나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 연금의 종류에 따라 종신행과 기간형 등이 있다.

키워드&트렌드에서는 2020년 한국농업 히트상품을 소개했는데, 5위 블렌딩 쌀, 4위 반려 식물, 3위 새벽배송, 2위 드라이브 스루, 1위 면역력 증진 농산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5. 23.	시청률	0.003

【총 평】

‘건축물 제로에너지 녹색바람 - 그린 리모델링’편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엄청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다루었다. 특히, 노후화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 건축물 제로 에너지 녹색 바람으로 이어지는 ‘한국판 뉴딜이 곧 나의 뉴딜’임을 강조하는 기획의도가 살아나 캠페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4년 후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린 리모델링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용과 정부 지원 정책 등을 상세히 소개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그린 리모델링’은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일하는 공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관심을 모으는 소재였다. 그 개념을 에너지효율에 포커스를 맞춰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줘 ‘그린 리모델링’이 왜 시대적 트렌드인지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사는 주택 그리고 일하는 공간에서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해 내용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나갔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리모델링 사례를 비교해서 소개하고 궁극적인 지향점인 전남 순천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취재했는데,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우리나라 건축물 중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의 규모를 적시하고 소위 ‘병든 집 증후군’이 일으키는 각종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 ‘그린 리모델링’과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차이점을 색상 대비하듯 설명했는데 왜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야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린 리모델링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돼 효과를 내고 있는지 종로구청 가압장 리모델링 사례, 대구은행 본점 리모델링, 박병열 건축사 부모집 사례 등을 통해 소구력과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종로구의 ‘혜명 아이들 놀이터’ 사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실제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시공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보여줘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힌트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었고 특히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한 점도 의미 있었다.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실천하고 있는 전남 순천 사례를 통해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피부에 와 닿는 메시지였다.

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친환경 건축물 표시, 도시 재생, 열교환기, 빙축열시스템 등에 대한 해설 자막과 그래픽 제공으로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